

[사회]

교육청 무사안일...학교 전문성 부족

“납품비리 양산 가능성 많다”

광주시의회 조사위, 신설학교 현장조사 중간보고

광주지역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이 교육청의 무사안일과 감독 소홀, 학교 관계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상시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방서 작성업체에 관계자로부터 도움받음으로써 최초 시방서 작성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신설학교 납품 행정사무조사위(위원장 김성숙)는 11일 지난 3일 동안 실시한 9개 신설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신설학교 개교 업무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

조사위는 2004년 이후 개교한 광주 지역 24개교의 교육청 일괄구매 예산 53억3천300만원 중 최소 15억원의 예산이 수년 동안 사라지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파악했다.

시의회 행정조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신설학교의 경우 교육청 일괄구매 물품을 제외하고 평균 4억3천만원의 예산을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1~2개월 사이에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조사위는 특히 각 학교의 교장실 가구는 최소 800만~1천800만원(국산) 상당의 고급가구가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국내산보다 약

40%가 저렴한 중국산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제품 시방서와 다른 물품이 납품되고 같은 규격의 동일 제품이지만 가격도 천차만별인 사실도 다수 발견했다.

A초등학교의 경우 보건실 침대가 시방서에는 32만원대 제작품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저가형 기성품이었으며, B학교는 학생용 작업대가 합판 양면으로 돼 있는 시방서와 다른 재질로 납품돼 1년 사이에 파손됐다. 또 축구 골대와 넓이 뛰기장 등 운동장 체육시설은 1천만원대로 통상 수의 계약으로 시설되고 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격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최고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신설학교 예산을 총액기준으로 학교에 배분하고 집행을 학교에 일임하면서도 신설학교 설립에 대한 표준 편차조사 마련하지 않은 교육청의 무사안일과 지도 감독 소홀, 회계관련 자료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천 NCC 총파업 돌입

에틸렌 등 공급 차질 우려

국내 최대 규모의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 NCC 노조가 11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001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여천 NCC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측과 17차례 임단협 협상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 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현재 올해 제조업 평균 임금 인상률(5.56%)을 반영해 ▲임금 인상 6.77%대 ▲영업 이익 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규

직 인원이 해마다 감소해 안전조업이 어렵다며 정규직 정원 보장과 정년 57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인상의 경우 2.3%대를 고수하고 있고, 정년 연장도 불가능하며 성과급 지급도 영업이익 감소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업에 앞서 여천 NCC 1공장은 증설·보수 공사로 가동중지(shutdown)에 들어간 상태며, 2·3공장은 관리직 엔지니어들이 하루 2교대로 비상 근무에 들어가 공장 가동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천 NCC=국내 최대의 NCC(Naphtha Cracking Center)업체. 에틸렌·프로필렌·벤젠·톨루엔·자일렌·스티렌모노머·부타디엔 등 각종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를 생산, 국내외 시장에 공급한다.

현재 에틸렌 146만, 프로필렌 76만, 가타 190만 등 연간 생산

량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매출액도 2003년 2조2천억원, 2005년 3조3천억원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제 1공장에 3천500억원을 투자, 연말까지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 연간 생산능력이 에틸렌 기준으로 35만t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어린이 119 체험교실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나강문)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 119 체험교실'을 열었다.

소방서 측은 운영하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영상교육장비·지진 체험실·소화기 사용 체험실·수직탈출 구조대 등을 갖추고 있다.

Weather forecast for October 12th (Wednesday) across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Chungcheong, Jeolla, and Jeju. Includes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temperatures and weather conditions.

번호이동 수천명 개통 지연·수신 불통

SKT “차세대 마케팅 시스템 불안정 발생”

SK텔레콤에서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휴대전화 이용자 수천명이 개통 지연·수신 불통을 겪었다.

이 같은 불편은 SK텔레콤이 지난 96년 이후 10년 만에 3천억원을 투자해 만든 차세대 마케팅시스템(NGM)

이 불안정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의 영업전산과 네트워크 장비 간 전산 오류로 KTF나 LGT로 번호이동을 한 SKT 가입자들이 여전히 SKT 전산시스템에는 자사 가입자로 인식되고 있어 번호이동 개통이 지연되고, 번호이동 후에도 통화가

이르지 않는 것이다.

NGM 가동 첫날인 9일에는 2만4천 856명이 번호이동을 신청했지만 이중 1천618명(6.4%)이 번호이동에 실패했으며, 10일에는 번호이동 신청자 1만9천360명 가운데 332명(1.7%)이 결국 번호이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KTF나 LG텔레콤 가입자가 SKT로 번호이동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고객 이모(43)씨는 “이용약관의 보상규정은 3시간 이상 전화 불통시 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요금 보상을 약속해 놓았지만 불만을 겪은 이용자들은 이미 SK텔레콤 이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전산오류로 피해를 입은 번호이동 이용자에 대한 어떤 보상 지침도 아직 내리진 게 없다”고 밝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수사 받는 법’ 기고 금태섭 검사 경고

대검찰청은 기관장 승인 없이 일간지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한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은 “검찰 수사 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을 임의로 기고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또 금 검사 소속된 부서의 부장검사에게는 지휘감독 의무 소홀로 ‘소속기관장 주의’ 조치를 취했다.

금 검사는 지난달 11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취지의 글을 시작으로 10차례 기고할 예정이었지만 글의 취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2회분부터 연재를 중단했다.

/연협뉴스

‘영아 유기’ 佛 부부 현지서 긴급체포

부모일 가능성 99.99%

서울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의 용의자인 프랑스인 부부가 숨진 영아 2명의 부모로 확인된 뒤 프랑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현지 검찰이 10일 밝혔다.

파리 남서쪽의 투르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측 DNA 분석 결과에서 쿠르조씨 부부가 숨진 영아들의 부모일 확률이 99.99%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필립 바랭 검사는 이날 투르 인근의 친구 집에 머물던 장-루이 쿠르조(40)씨와 베로니크 쿠르조(39)씨를 검거했다고 밝히고 체포 기간이 48시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르조씨 부부는 그간 자신들이 영

아들의 부모라는 한국 측 DNA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버텼다. 프랑스 신형법에 따르면 고의 살인 죄에 징역 30년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가장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쿠르조씨 부부가 영아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한국행을 거부해 온 가운데 영아들의 DNA 시료가 지난달 28일 프랑스 측에 넘겨졌었다. 쿠르조씨 부부는 지난달 26일 투르 인근의 오를레앙의 전문기관에서 DNA 테스트에 응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의 쿠르조씨 집 냉동고에서 영아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이 불거지며 양국 간에 파장이 일어났다.

/연협뉴스

원산지 표시 위반

광주·전남 112건 적발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 9월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서 허위표시 등 위반업소 69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허위표시 37건, 미표시 75건 등 112건에 달했

으며 이중 수입산물로 만든 5억여원어치의 떡을 국산으로 속여 판 광주 광산구 0떡집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37명을 형사 입건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369곳의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농관원은 냉동고추와 마늘, 생강 등 김장용 양념류와 원산지 위위표시 등 위반업소 69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World System' (월드시스템) featuring a 'KorCo' automatic machine. It highlights benefits like 'KorCo' being a product of KAIST and its use in various settings like homes, offices, and schools. Contact info: 062-603-2752.

Advertisement for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Everything for office furniture) by Hanbo GAGLI. It lists various office furniture items like desks, chairs, and storage units. Website: www.hanboGAGLI.com. Contact: 062-925-8888.

Advertisement for '토치 광주총판' (Tochi Kwangju General Dealer) for 'Torch' brand office chairs. It features images of different chair models and lists various features and benefits. Contact: 062-925-8888.